

清華簡『金縢』을 통해 본『尙書』‘詰屈聱牙’ 현상의 유형적 고찰

- 출토문헌과 통행본의 대조를 중심으로

김정남*

<目 次>

1. 서론
2. 清華簡『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와 통행본『尙書·金縢』의 비교 고찰
3. 두 판본의 비교를 통해 본 통행본『尙書』의 ‘詰屈聱牙’ 현상 분석
4. 결론

1. 서론

韓愈는 일찍이「進學解」에서『尙書』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한 바 있는데, 그는 이를‘詰屈聱牙’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후로‘詰屈聱牙’는『尙書』 문체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대로,『尙書』는‘上古之書’로 여겨져 왔으며 堯舜시대부터 東周시기 秦穆公까지 150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헌에 기록된 수많은 문구와 어휘는 秦漢시대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석을 통해야만 해석할 수 있었다. 漢代 이후로『尙書』는 정치, 철학 분야의 주요 경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당시 학자들은『尙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尙書』의 원시 형태를 확인할 방법이

* 復旦大學校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博士課程

없었으며, 그 본뜻에 대한 고증작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나 인용해야 할 경우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尙書』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대 유학자가 참고하던 『尙書』 어구도 이미 여러 번 필사되어 문자, 어휘 등이 모두 변형된 것이었으나, 그들은 이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經典'에 대한 숭배 의식까지 작용하여 변형된 내용 그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尙書』의 '詰屈聱牙' 현상은 상고시대 역사를 기록한 점과 경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의식으로 인하여 합리화되기 시작했으며, 수정되어야 할 '오류'라기보다는 일종의 '文體'로 자리 잡게 된다. 古文 『尙書』가 僞書로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今文 『尙書』보다 '詰屈聱牙' 현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詰屈聱牙' 현상은 『尙書』를 대표하는 주요 특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清華大學이 所藏 戰國楚竹簡 (이하 清華簡)에 포함된 『尙書』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韓愈를 비롯한 후대인들이 토론했던 '詰屈聱牙'는 찾아보기 힘들며, 어휘나 문구 역시 西周金文 용례가 그대로 쓰이거나 일부 변형된 것 외에는 전국시기 문헌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출토본 『尙書』 관련 문헌과 통행본 『尙書』와의 대조를 통해서 '詰屈聱牙' 현상을 유형별로 검토해보고, 이러한 현상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清華簡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와 통행본 『尙書·金縢』의 비교 고찰

2절에서는 清華簡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이하 清華簡 『金縢』)과 통행본 『尙書·金縢』(이하 통행본 『金縢』)의 어휘,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이를 위해, 清華簡 『金縢』과 통행본 『金縢』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문자, 어휘, 어구상의 차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 차이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또한 清華簡 『金縢』

의 죽간 순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1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武王既克殷三年, 王不豫有遲. 二公告周公曰, “我其爲王穆卜.” 周公曰, “未可以 (무왕이 은나라를 이긴 지 3년이 되던 해, 왕은 몸이 편치 않은 것이 점점 길어지자 태공과 소공이 주공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을 위해서 점을 치려고 합니다.” 주공 가로되,)	既克商二年, 王有疾, 弗豫. 二公曰, “我其爲王穆卜.” 周公曰, “未可以 (상나라를 이긴 지 2년이 지나 왕은 병을 얻어 편안하지 못했다. 태공과 소공이 가로되, “우리가 왕을 위해서 점을 치려고 합니다.” 주공 가로되,)


清華簡의 ‘殷’은 통행본에서 ‘商’으로 쓰여 있다. ‘殷’과 ‘商’은 같은 왕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 두 호칭이 어떤 규칙에 의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清華簡은 3년, 통행본은 2년으로 쓰여 있다. 『孔傳』에서는 ‘주를 정벌한 이듬해(伐紂明年)’, 『史記·周本紀』에서는 “무왕이 은을 정복하고 2년이 지난 후(武王已克殷, 後二年)”로 쓰여 있다. 이는 통행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清華簡과 통행본의 차이는 표기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2년은 기간을 표시한 것이며, 3년은 연수(年數)를 표시한 것이다.

清華簡 ‘不豫有遲’는 통행본에서 ‘有疾, 弗豫’로 쓰여 있다. ‘弗豫’는 ‘몸이 편하지 않다’, ‘병이 있다’의 뜻으로 ‘有疾’과 의미가 중복된다. ‘不豫有遲’는 ‘有疾, 弗豫’과 달리 한 구절이며 ‘몸이 좋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의 뜻으로 통행본보다 의미상 명확하다. 清華簡 ‘二公告周公曰’은 통행본에서는 ‘告周公’가 생략된 ‘二公曰’로 쓰여 있다. ‘二公告周公曰’는 갑골문과 서주(西周)시기 금문에서 ‘발화자+告(于)+수신자’ 구문과 일치하며,¹⁾ 통행본 ‘二公曰’보다 상황묘사가 더 구체적이다.

1) 갑골문은 ‘貞告于祖乙’(合集00938正.4), ‘王其去告于祖辛’(合集01724正.1) 등이 있으며, 서주 중기에 제작된 『召卣』에서도 ‘昔饑歲, 匡衆孚(厥)臣廿夫, 寇習禾十秬, 以匡季告東宮, 東宮迺曰’(集成02838)과 같은 용례가 있다. 통행본 『尚書·大誥』의 ‘肆予告我友邦君越尹氏庶士御士, 曰’도 이와 동일한 구조의 용례이다.

2) 2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p>戚吾先王。”周公乃爲三壇同墀，爲一壇於南方， 周公立焉。秉璧戴珪，史乃冊 (“우리 선왕들을 걱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은 이에 세 단을 만들어 모두 깨끗이 청소하였다. 단 하나를 남쪽에 만들고 주공이 그 위에 섰다. 벽옥을 잡고 흠을 머리에 썼다. 사관들이 이에 冊을 만들어)</p>	<p>威我先王。”公乃自以爲功，爲三壇同墀， 爲壇於南方，北面，周公立焉，植璧秉珪， 乃告大王王季文王。史乃冊 (“우리 선왕들을 걱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은 이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 세 단을 만들고 모두 깨끗이 청소하였다. 또 남쪽에 단을 만들고 북면하여 주공이 그 위에 섰다. 벽옥을 놓고 흠을 들고 이에 대왕과 왕계, 문왕에게 아뢰었다. 사관들이 이에 冊을 만들어)</p>

2호간 ‘吾’는 통행본에서 ‘我’로 쓰였다. 통행본 『尙書』에서 ‘吾’가 쓰인 용례는 ‘吾家老遜于荒’가 유일하다. 『詩經』에서도 쓰인 용례가 없다. 갑골문, 금문에서는 ‘魚’, ‘虞’, ‘虞’로 대신 쓰였으나 이 또한 정설은 아니다. ‘吾’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은 춘추 시기 이후이며 ‘我’, ‘予’, ‘朕’보다 늦게 출현하였다. 통행본 ‘我’가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주공(周公)이 제단에서 의식을 올리는 장면은 통행본이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公乃自以爲功，爲三壇同墀’는 清華簡에서 ‘周公乃爲三壇同墀’으로 간략하게 묘사했다. ‘爲一壇於南方’ 다음의 ‘北面’과 ‘乃告大王王季文王’도 쓰이지 않았다. 清華簡 ‘秉璧戴珪’과 통행본 ‘植璧秉珪’는 ‘秉’과 ‘戴(植)’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선진시기 문헌에서 ‘珪(圭)’는 ‘執’과 호응을 이룬다. ‘執’과 ‘秉’ 모두 ‘잡다’, ‘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 따라서 ‘秉珪’는 ‘執珪’의 또 다른 용례이다. ‘戴’은 清華簡에서 로 쓰였는데, 정리자는 ‘嵬’로 隸定하였다. 통행본에서는 ‘植’자로 쓰였으나 정현(鄭玄)은 ‘置’로, 단옥제는 今文 『尙書』에서 ‘戴’로 쓰였다고 언급했다. ‘戴珪’에 대해서 陳劍(2011)은 “옥기를 머리에 쓰는 것은 제사에서 쓰이는 희생을 모방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³⁾ 이 해석을 토대로

2) 『爾雅·釋詁下』에서 ‘秉’과 ‘拱’을 ‘執’으로 해석하였다. 손성연(孫星衍)은 『尙書今古文注疏』에서 『爾雅·釋詁下』를 인용하여 ‘植璧秉珪’의 ‘秉’을 ‘執’으로 풀이했다. 또한 정현(鄭玄)은 『詩經·小弁』‘君子秉心’, 『詩經·烝民』‘民之秉彝’의 ‘秉’도 ‘執’으로 풀이하였다.
 3) 陳劍, 『清華簡金縢研讀三題』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第四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통행본과 清華簡의 용례를 다시 살펴보면 후대인들이 옥기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崑'를 '珪'와 의미상 호응을 이룰 수 있는 '秉'으로 고쳐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3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祝告先王曰, “爾元孫發也, 遭害虐疾, 爾毋乃有備子之責在上? 惟爾元發也, (선왕에게 축원하며 가로되, ‘당신들의 장자 發은 상태가 위중하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에서 자손을 갖춰야할 책임이 있지 않으신지요? 당신들의 장손 發은,)	祝曰, “惟爾元孫某, 遭厲虐疾, 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 以旦代某之身. (축원하며 가로되, 당신들의 장손 아무개는 상태가 위중하여 중병에 걸렸습니다. 세 왕께서 진정으로 하늘에서 장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신데, 제가 아무개의 몸을 대신하려 합니다.)

3호간의 '祝告先王'도 1호간 '二公告周公曰'과 마찬가지로 '발화자+告(于)+수신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 清華簡 '先王'은 통행본 '大王王季文王'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武王의 이름 '發'을 통행본에서는 '某'로 피휘하고 있다. 清華簡 '害'와 통행본 '厲' 모두 '危'를 뜻하는 유의어이다. 孔安國은 '厲, 危'라 했으며, 朱右曾은 『逸周書·周祝』 '善用道者終無害'에서 '害, 危也.'라고 했다.⁴⁾

清華簡 '爾毋乃'와 통행본 '若爾三王是'는 문장 구조와 수사 방식 모두 상당 부분 다르다. '毋乃'는 행위의 부정을 표시하거나 반어문에서 사용된다. 上博簡『魯邦大旱』 1호간의 “邦大旱, 毋乃失諸刑與德乎?(나라에 큰 가뭄이 든 것은 형벌과 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清華簡『系年』 50호간 “未可奉承也, 毋乃不能邦?(아직 계승하지도 못하는데 나라를 능히 다스릴 수 있겠는가?)”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반어문은 가정문에 비해서 강한 단정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통행본 '是'의 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楊筠如(2005), 屈萬里(2011)는 '是'는 '實'과 통한다고 하였고⁵⁾, 周秉鈞(2010)은 '이 때'로 풀이하였다.⁶⁾ 劉起鈞

年12月, 163쪽.
 4) [漢] 孔安國傳, [唐] 孔穎達疏, 『尚書正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1月, 495쪽; 黃懷信, 『逸周書彙校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3月, 1065쪽.

(2005)는 ‘此’로 풀이하였다.⁷⁾ 실제로 清華簡에서는 ‘是’를 대신하여 ‘乃’가 쓰였다. 『經詞衍釋』 卷九에서 ‘是, 乃也’로 정의한 사례도 있으나⁸⁾, ‘是’의 일반 용법으로는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통행본 ‘丕子’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해석한 학자는 劉起鈺(2005)이다.⁹⁾ 그는 漢代 今文學자의 의견부터 20세기 학자의 견해까지 총망라하여 ‘丕子’를 ‘큰 아들’로 해석하였다. 清華簡 ‘備子’를 가장 객관적으로 해석한 학자는 陳劍(2013)이다. 전국시기 출토문헌과 전래문헌 용례에 의거하여 ‘備子’를 ‘자손을 갖추다’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 있는 갑골문, 서주시기 금문과 진간 용례를 소개하여 통행본 ‘丕子’의 해석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였다.¹⁰⁾ 하지만 두 용례의 관계가 본래 동일한 용례에서 파생된 것인지, 다른 판본에서 비롯된 각각의 용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

4) 4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不若且也。是佞若巧能。多才多藝。能事鬼神。 命于帝庭。匍有四方。以奠爾子 (저보다 못합니다. 지혜롭고 재주가 있으며 다재다능하니, 능히 귀신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하늘의 조정에서 명을 받아 천하를 점유하며 당신들의 자손을)	予仁若考能。多材多藝。能事鬼神。乃元孫。 不若且多材多藝。不能事鬼神。乃命于帝庭。 敷佑四方。用能定爾子 (저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면서도 능력 있고 다재다능하니, 능히 귀신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장손은 저보다도 다재다능하지 못하며 귀신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조정에서 명을 받아 천하를 두루 보유하고 당신들의 자손들을)

5) 楊筠如, 『尚書覈詁』,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5年12月, 227쪽; 屈萬里, 『尚書今注今譯』, 北京, 新世界出版社, 2011年 8月, 72쪽.
 6) 周秉鈞, 『尚書易解』,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年 6月, 140쪽.
 7) 顧頡剛、劉起鈺, 『尚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年1月, 1228쪽.
 8) 宗福邦,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年7月, 1021쪽.
 9) 注 7)과 동일, 1253~1260쪽.
 10) 陳劍, 「備子之責與唐取婦好」, 『出土材料與新視野』第四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 2013年, 169쪽.

통행본에서는 '多材多藝, 能事鬼神'이 반복되고 있으나 清華簡은 한 차례만 쓰였다. '不若且也'를 '是佞若巧能' 앞에 제시하여 주공이 무왕(發)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통행본의 '予仁若考'과 '多材多藝' 사이의 '能'을 어느 구절에 귀속시키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孔安國, 孔穎達, 蔡沈 모두 '予仁若考能, 多材多藝, …'로 읽었으나¹¹⁾, 王念孫, 俞樾, 劉起鈺 등은 '予仁若考, 能多材多藝'로 읽었다.¹²⁾ 이는 '能'이 '而' 또는 '且'와 같은 허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能'을 '多材多藝'에 귀속시켜 해석하였다. '能'은 앞 구절에 귀속시켜야 한다. 통행본에서 '不若且'이하로 '多材多藝, 能事鬼神'가 반복되는데 '多'앞에 '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행본 '予仁若考能'은 『史記』에서도 관련 용례가 등장한다. 「魯周公世家」의 '且巧能'은 '予仁若考能'의 또 다른 용례로 볼 수 있다. 이는 '能'을 재주로 풀이할 수 있는 근거이며 '能事鬼神'의 '能'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또한 '仁若考能(清華簡의 佞若巧能)'은 네 가지 형용사가 순차적으로 쓰인 것으로 이 때 '能'은 '재주'를 뜻한다. 『尙書·堯典』에서도 '欽明文思安安'과 같은 용례가 있는데, '欽明文思'는 네 가지 덕목을 병렬한 것이다. '仁若考能' 또한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清華簡 '巧'는 '考'와 통한다. '考'(이체자 '攷')와 '巧' 모두 성부가 'ㄎ'이며, 'ㄎ'는 '巧'의 '古文'이기도 하다.¹³⁾ 清華簡 4호간에서도 본래 'ㄎ'로 쓰여 있으며 정리자가 '巧'로 해석하였다. 「魯周公世家」 '且巧能'도 'ㄎ'를 쓰고 있는데, 통행본 '考'보다는 의미상 더 자연스럽다. '考'와 '巧'는 'ㄎ'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清華簡 '匍有'는 西周 金文과 선진문헌에서 자주 쓰인 용례로 '차지하다', '점유하다'로 해석해야 한다.¹⁴⁾ 하지만 후대인이 이를 '數佑'와 동음가차로 간주하고 덕

11) 〔漢〕孔安國傳, 〔唐〕孔穎達疏, 『尙書正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년1월, 495쪽;
〔宋〕蔡沈注, 錢宗武, 錢忠弼 整理, 『書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10년 1월, 153쪽.
12) 注 7)과 동일, 1229쪽.
13) 『說文·ㄎ部』: 'ㄎ, 气欲舒出. ㄎ上礙於一也. ㄎ, 古文以爲ㄎ字, 又以爲巧字.' (〔漢〕許慎 撰, 〔宋〕徐鉉 校定, 『說文解字』(附檢字), 北京, 中華書局, 1963년 12월, 101쪽.)
14) 자세한 사항은 顧頡剛, 劉起鈺, 『尙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년1월, 1230쪽 참고.

으로 사람을 교화하며 백성들을 돕는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孔安國, 孔穎達 모두 ‘德教’를 통해서 사방의 백성들을 돕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¹⁵⁾, 이는 유교적 관점이 반영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淸華簡 『金縢』의 원시 판본 또한 西周시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므로 ‘匍有’는 西周시기 용례로 봐야 하며, 유교적 관점을 배제한 ‘차지하다’, ‘점유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행본 ‘定’과 淸華簡 ‘奠’ 모두 ‘안정되다’로 풀이한다. ‘奠’은 戰國 楚簡자료에서 ‘안정되다’로 쓰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西周시기 『詢簋』(集成4321)에서 ‘則乃祖奠周邦’과 같은 용례가 있다. 또한 『尙書·禹貢』 ‘奠高山大川’을 『史記·夏本紀』에서는 ‘定高山大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皮錫瑞는 ‘고대에 ‘奠’으로 쓰던 것을 漢代부터 ‘奠’으로 쓴 증거’라고 언급했다.¹⁶⁾ 淸華簡과 통행본의 차이도 이와 일치한다.

5) 5호간

淸華簡 『金縢』	통행본 『金縢』
<p>孫于下地。爾之許我，則厭璧與珪。爾不我許，我乃以璧與珪歸。周公乃納其</p> <p>(천하에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허락하신다면 벽옥과 홀을 문을 것이며, 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에 벽옥과 규옥을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공은 이에)</p>	<p>孫于下地。…… 爾之許我，我其以璧與珪歸。俟爾命，爾不許我，我乃屏璧與珪。”…… 公歸，乃納冊(于金縢之匱中。)</p> <p>(천하에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나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벽옥과 규옥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며 당신의 명을 기다릴 것이며 당신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에 벽옥과 규를 가려놓겠습니다.”…… 공은 돌아가 이에 책문을 금등의 궤에 넣어두었습니다.)</p>

통행본에서 축문 중 점복을 언급한 부분과 점복 과정을 묘사한 내용은 淸華簡에서 볼 수 없다. (두 판본의 대조를 위해서 점복 관련 부분은 말줄임표로 생략하였다.) 淸華簡과 일치하는 부분은 “爾之許我，我其以璧與珪歸(，俟爾命)，爾不許我，我乃屏璧與珪.”이지만 ‘爾之許我’과 ‘爾不許我’가 호응하는 부분이 서로 상반

15) 『孔傳』: ‘布其德教，以佑助四方’; 『尙書正義』: ‘能布其德教，以佑助四方之民.’
 16) [清] 皮錫瑞, 『今文尙書考證』, 北京, 中華書局, 1989年 1月, 135쪽.

된다. 또한 통행본 '屏'과 清華簡 '厭'은 자형이나 의미, 상고음 어느 측면에서 봐도 관련성이 없다. 清華簡 '厭'은 본래 𠄎이며, 정리자는 𠄎로 예정하였다. 徐在國(2011)은 이 자형을 '厭'으로 해석하였다.¹⁷⁾ 陳劍(2011)은 徐在國의 해석을 토대로 제사나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희생, 옥을 구덩이에 묻는 관습과 주공이 무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를 희생으로 바치려는 일련의 과정을 대조하여 𠄎를 '瘞'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¹⁸⁾ 이를 토대로 清華簡의 "爾之許我, 則厭璧與珪. 爾不我許, 我乃以璧與珪歸"는 "당신께서 나를 허락해주시면 벽옥과 규옥을 묻고, 나를 허락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에 벽옥과 규옥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통행본에서 조상들이 주공 자신을 허락해주는 경우 벽옥과 규옥을 가지고 돌아가(歸) 당신의 명을 기다릴 것이며, 허락해주시지 않는 경우 벽옥과 규옥을 가릴 것이다.(屏)라고 한 것보다 자연스럽다.

孔安國은 '屏'을 '臧'으로 풀이하고 '신을 모실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孫詒讓은 『禮記·曾子問』의 "天子諸侯將出, 必以幣帛皮圭告于祖禰, 遂奉以出, 載于齊車以行. 每舍, 奠焉而後就舍. 反必告, 設奠卒, 斂幣玉, 藏諸兩階之間, 乃出.(천자, 제후가 장차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폐백과 규옥으로 조상의 묘에 고제를 지내고 마친 후에 그것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齊車에 걸치고 가야 한다. 매번 쉴 때는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후에 휴식을 취한다. 돌아갈 때도 반드시 고제를 지내며 끝나기를 기다린 후 폐물과 옥을 거두어 들이며 두 계단 사이에 숨겨놓은 후 나간다.)"를 근거로 '屏'을 '臧'으로 해석하였다.¹⁹⁾ 희생과 옥기를 묻는 관습과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기를 숨기는 관습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7) 부단대 출토문헌고문자연구중심, 「清華簡金縢研讀札記」, 부단대 출토문헌고문자연구중심 홈페이지, 2011년1월5일, http://www.gvz.fudan.edu.cn/srcshow.asp?src_id=13 44.

18) 陳劍, 「清華簡『金縢』研讀三題」,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四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年 12月, 150쪽.

19) [清] 王先謙, 『尚書孔傳參正』, 北京, 中華書局, 2011年 9月, 605쪽.

6) 6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所爲功自以代王之說， 于金縢之匱。乃命執事人曰，“勿敢言。” 就後武王力。成王繇 (스스로 제물이 되어 왕을 대신한다는 문서를 쇠줄로 봉한 궤에 넣었다. 이에 집정관들에게 명하기를 “절대로 감히 발설치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 무왕은 사망했다. 성왕은)	于金縢之匱中，王翼日乃瘳。武王既喪， (왕은 다음 날에 곧 병이 나은것다. 무왕이 사망한 후에.)

6호간 ‘所爲攻自以代王之說’는 통행본 ‘冊’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乃命執事人曰，勿敢言。”은 통행본에서는 성왕이 ‘金縢之書’을 본 후 주위에 있던 관리를 통해 전해 듣는 내용이다. 清華簡에서는 이와 달리 주공의 대사로 먼저 제시하고 11호간에서도 통행본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6호간은 ‘于金縢之匱’ 외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문맥상, ‘就後武王力’과 ‘王翼日乃瘳’가 대구를 이루지만 의미는 상반된다. 『尙書·顧命』의 “惟周文武誕受若，克恤西土。惟新陟王畢協賞罰，戡定厥功，用敷遺後人休。(주 문왕과 무왕이 훌륭한 도를 받으시어 서쪽 영토를 구휼해주시었습니다. 갓 승하하신 왕께서는 상과 벌 모두 합당하게 처리하시고 그분들의 공을 정하시어 뒷사람들에게 복을 널리 남겨주실 수 있었습니다.)”에서 ‘新陟王’은 ‘周文武’ 다음에 승하한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成王’을 지칭한다. 『古本竹書紀年』에서도 제왕이 사망할 때마다 ‘陟’을 사용한다. 清華簡『繫年』에서도 “武王陟，商邑興反，殺三監而立紂子耿。(무왕이 봉하고 상읍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삼감의 관리를 죽이고 녹자경을 옹립하였다.)”과 같은 용례가 있다.²⁰⁾ ‘力’과 ‘陟’ 모두 職部에 속하므로 첩운관계이다. 『史記·周本紀』 ‘其後武王既崩’도 ‘就後武王力’과 유사하다. 통행본 ‘瘳’는 ‘力’이나 ‘陟’ 모두 관련성이 없다. 또한 ‘武王既喪’과도 의미상 연관성이 없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통행본 편집 과정에서 계통이 서로 다른 판본이 서로 뒤섞였을 가

20) 청화대학 출토문헌연구보호센터.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2011年12月, 143쪽.

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이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왕이 사망한 것을 기술하는데 판본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가 여러 판본을 참고하고 용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공이 치른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왕의 상태가 잠시 호전된 상황을 기술한 판본을 선택했을 수 있다. '瘳'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7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幼在位, 管叔及其群兄弟乃流言于邦曰, “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告二公曰, “我之 (어려서부터 왕위에 있었으며 관숙 및 그 세력들이 이에 나라 안에 뜯소문을 퍼뜨렸는데, ‘주공이 장차 어린 왕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라고 했다. 주공은 이에 두 공에게 고하기를, ‘내가’)	管叔及其羣弟, 乃流言於國曰, “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告二公曰, (관숙 및 그 형제들이 이에 나라 안에 뜯소문을 퍼뜨렸는데, ‘공이 장차 어린 왕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주공은 이에 두 공에게 고하기를,)

7호간 ‘幼在位’의 주체는 6호간의 ‘成王’이다. 成王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선진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주공이 섭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¹⁾ 7호간에 서와 같이 成王의 즉위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드물다.

‘其群兄弟’는 통행본의 ‘其羣弟’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선진문헌에서 단독으로 쓰인 ‘弟’는 다양한 신분을 나타낸다. 周代 이후로 종법제도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친척, 가족을 지칭하는 명칭도 다양해졌다. ‘弟’의 대표적인 용법은 군주나 제후의 자손 중에서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서얼출신의 형제, 누이 동생, 자신보다 나이 어린 형제를 지칭할 때 쓰인다.

통행본 ‘其羣弟’는 孔安國 이래로 ‘蔡叔’과 ‘霍叔’을 지칭하는 용례로 여겨져 왔다. 孔穎達은 管叔까지도 포함시켜 해석하였는데, 管叔은 실제로 주공의 형이기 때문에 ‘弟’로 포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成王이 즉위한 후 일어난 반란은

21) 관련 내용으로는 『逸周書·作雒解』 “王既歸, 乃歲十二月崩鎬, 殯于岐周. 周公立, 相天子, ……”; 『禮記·明堂位』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 以治天下.”; 『荀子·儒效』 “武王崩, 成王幼, 周公屏成王而及武王, 以屬天下, 惡天下之倍周也.” 등이 있다.

管叔, 蔡叔, 霍叔 이외에도 그들이 규합한 주변 세력에 의한 것이다. 『逸周書·作雒解』에서도 “三叔及殷, 東, 徐, 奄及熊盈以略(삼숙 및 은, 동, 서, 엄과 웅영이 침략해왔다)”라고 했으며, 『書序』에서 「大誥」의 편찬 사유를 “武王崩, 三監及淮夷叛.”로 언급하고 있다. 淸華簡의 ‘其群兄弟’는 바로 蔡叔, 霍叔을 제외한 管叔과 주변 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례이다. 『尙書·梓材』의 ‘兄弟方’과 같이 ‘兄弟’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숙관계 외에도 주변 동맹 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其群兄弟’은 ‘其群弟’보다도 지칭 범위가 포괄적이고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부합한다.

8) 8호간

淸華簡『金縢』	통행본『金縢』
<p>□□□□, 無以復見於先王. 周公適東三年, 禍人乃斯得. 於後周公乃遺王詩. (…… 다시는 선왕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공이 동쪽으로 간지 3년 되던 해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그 후에 주공은 왕에게 시를 남겼는데.)</p>	<p>“我之弗辟, 我無以告我先王.” 周公居東二年, 則罪人斯得. 于後公乃爲詩以貽王, 名之 (‘내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선왕에게 고할 수 없게 됩니다.’ 주공은 동쪽에서 지낸지 2년이 지나 죄인을 모두 잡아들이고 그 후에 공은 시를 지어 왕에게 바쳤는데, 그 시의 이름이)</p>

8호간 상단부가 파손되어 몇 자가 유실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각 문자의 평균 길이와 통행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유실된 부분에 4자 정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淸華簡 ‘復見’은 통행본의 ‘告’와 대응된다. 孔安國은 “我無以告我先王”을 “則我無以成周道告我先王.(나는 주의 도가 완성되었음을 선왕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으로 해석하였다. 이 두 가지 용례는 주공이 어떤 상황에서 선왕에게 알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蔡沈은 “無以告我先王于地下(지하 세계에서 우리 선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게 된다.)”로 해석하여 사후 세계에서 직접 알려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淸華簡의 ‘復見’은 蔡沈의 해석과 상통한다.

淸華簡 ‘適’은 통행본 ‘居’에 대응한다. 8호간 ‘適’은 본래 𠄎로 쓰여 있으며 ‘石’으로 예정이다. ‘周公居東二年’는 「金縢」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구절이다. 류국충(劉國忠)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총망라하여 모두 16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

를 다시 “동쪽을 정벌했다(東征)”는 설과 “楚로 도주했다(奔楚)”는 의견, 그리고 “동쪽에서 처분을 기다렸다(待罪於東)”는 의견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²²⁾ 전국시기 출토문헌에 쓰인 ‘石’은 ‘宅’과 자주 통가된다. 하지만 ‘宅’은 ‘居’와 비슷한 용례이므로 주공이 동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石’은 전국시기 출토문헌에서 세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본의로 쓰이며 두 번째는 인명·성씨, 세 번째로는 양사(量詞)로 쓰인다. 이와 같은 용례로는 “周公居東二年”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8호간의 ‘石’은 𠄎의 생략된 자형일 것으로 추정한다. 𠄎은 전국초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형으로 九店楚簡 56·32호간 “𠄎四方野外”, 上博楚簡『昭王毀室』1호간 “將𠄎闔” 등의 용례가 있다. 𠄎은 ‘遮’의 이체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蹠’의 이체자이기도 하다. 선진시기 ‘蹠’는 ‘適’, ‘至’와 같은 ‘가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淮南子·原道』“出生入死, 自無蹠有, 自有蹠無, 而以衰賤矣.”에 대해 高誘는 ‘蹠, 適也’라고 풀이하였다. 또한 睡虎地秦簡『日書』甲 9호간의 ‘之四方野外’과 구점초간의 용례가 서로 일치하는데 이는 𠄎이 ‘가다’로 풀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이다.

이 밖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용례가 바로 上博楚簡『平王與王子木』1호간 “競平王命王子木𠄎城父”와 3호간 “莊王𠄎河雍之行”이다. 郝士宏(2007)은 𠄎이 ‘守’와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기고 정리자가 제시한 ‘至’보다도 ‘守’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1호간 용례와 『說苑·辨物』“王子建出守于城父”, 3호간 용례와 『韓非子·喻老』“楚莊王既勝, 狩於河雍, 歸而賞孫叔敖.”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左傳·成十六』의 “韓厥將下軍, 卻至佐新軍, 荀罃居守”를 제시하여 ‘居’와 ‘守’가 의미상 연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²³⁾ 이를 토대로, 8호간의 ‘石’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는 𠄎의 생략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다’의 표면적 의미와 더불어 ‘수호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공은 동쪽을 수호하기 위해 간 것이므로, 주공은 주변 세력의 정벌을 위해

22) 劉國忠, 李學勤, 『走進清華簡』,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年4月, 96쪽.

23) 郝士宏, 「初讀上博簡(六)」, 무한대학 간백연구소센터 홈페이지, 2007年 7月 21日,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648.

동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淸華簡 ‘禍人’은 통행본 ‘罪人’에 해당한다. 두 용례는 의미상 동일하지만 ‘罪’와 ‘禍’가 내포하는 의미는 차이가 있다. 출토문헌에서 ‘罪’는 일반적으로 범법행위, 과실 등을 나타내며, 처벌이나 배상, 교화로 회복될 수 있다. ‘禍’는 재앙, 멸망, 흉조 등을 나타내므로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禍’는 ‘罪’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표현한다. 통행본 ‘罪人’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역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孔安國은 반란을 일으킨 ‘三叔’이라고 했으며 鄭玄은 주공과 그 무리들이라고 했다. 蔡沈은 유언비어가 퍼질 때는 ‘罪人’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2년이 지난 후 蔡叔과 霍叔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⁴⁾ 俞樾은 ‘周公居東二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므로 주공이 알게 된 것이지 成王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이른바 알게 된 것은 유언비어가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⁵⁾ 이는 ‘罪’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긴 해석상의 차이이다. 淸華簡 ‘禍人’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난이나 반란, 국가 멸망 등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명확히 반란을 일으킨 ‘三叔’을 지칭한다. ‘罪人’보다 지칭하는 대상이 더 명확하며 주공이 동쪽으로 간 목적이 정벌에 있음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9) 9호간

淸華簡 『金縢』	통행본 『金縢』
曰,“周鴟, 王亦未逆公. 是歲也, 秋大熟, 未穫. 天疾風以雷, 禾斯偃, 大木斯拔, 邦人(“周鴟”라고 했다. 왕은 또한 공을 맞이하지 않았다. 이 해에 가을에 곡식들이 잘 익었음에도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천둥을 동반한 거세 바람이 일어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도 뽑히고 말았다. 나라 백성들이)	曰,“鴟鴞, 王亦未敢誚公. 秋大熟未穫. 天大雷電以風, 禾盡偃, 大木斯拔, 邦人大恐.(“鴟鴞”이다. 왕은 또한 감히 공을 책망하지는 못했다. 가을에 곡식이 잘 익었지만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크게 천둥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가 모두 뽑혀 나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24) [宋] 蔡沈注, 錢宗武, 錢忠弼 整理, 『書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10년 1월, 155쪽.
 25) 注 7)과 동일, 1238쪽.

清華簡의 '逆'은 통행본 '諂'에 해당하며, 『史記·魯周公世家』에서는 '訓'으로 쓰여 있다. 세 자는 자형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통행본과 『史記·魯周公世家』에서 비관, 훈계의 의미가 쓰인 것은 漢代 이후로 해석자들이 '逆'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추측된다. 선진문헌에서 '逆+某人'의 형식일 경우, '누군가를 맞이하다'로 풀이한다. 또한 '逆+추상개념'일 경우 '逆'은 '거스르다', '위배하다'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郭店楚簡『性自命出』 11호간 "逆性者, 悅也; 室性者, 故也.", 『成之聞之』 32호간 "是故小人亂天常以逆大道." 등에서 '逆'은 '거스르다'로 해석한다. 하지만 漢代 이후로부터는 '逆+某人'의 형식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르다'로 해석해야 하는 용례가 등장한다. 馬王堆帛書『春秋事語·齊桓公與蔡夫人乘周章』 "士說曰, 蔡其亡乎. 夫女制不逆夫, 天之道也.", 『史記·趙世家』 "子不反親, 臣不逆君, 兄弟之通義也."에서 '逆'은 '반대하다', '거스르다'로 해석한다. 통행본의 '諂'는 이와 같은 '逆'의 용법을 토대로 쓰인 용례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漢代 馬融과 鄭玄은 주공이 동쪽에 머물며 지은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諂'는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용례이다. 또한 12호간에서도 '逆'이 쓰였다. 9호간과 달리, 12호간 '逆'은 통행본에서도 그대로 '逆'으로 쓰였으며, 『史記·魯周公世家』에서는 '迎'으로 쓰였다. 9호간 '逆'은 成王이 '金縢之書'를 보기 전이며 12호간 '逆'은 그 후의 일이다. 내용상, 成王은 주공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깨달은 후이므로 후대인이 12호간 '逆'을 '맞이하다'로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10) 10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p>□□□□弁, 大夫端, 以啓金縢之匱. 王得周公之所自以爲功以代武王之說. 王問鞅 (…… 예복을 갖추고 대부들도 조복을 갖추어 금등지폐를 열었다. 왕은 주공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무왕을 대신한다는 내용을 얻게 된다. 왕이 집사들에게 물어보기를.)</p>	<p>王與大夫盡弁, 以啓金縢之書. 乃得周公所自以爲功代武王之說. 二公及王, 乃問諸史與百執事, (왕과 대부 모두 예복을 갖추고 궤 안에 있는 문서를 열었는데 이에 주공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무왕을 대신하려는 글을 발견하였다. 두 공 및 왕은 이에 모든 사관과 집사에게 물어보았다.)</p>

10호간 상단부도 파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통행본과 비교했을 때, ‘… 大恐, 王與大夫盡弁, …’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皮錫瑞는 “今文학자는 ‘弁’을 ‘皮弁’으로 해석하고 鄭玄은 ‘弁’을 ‘爵弁’으로 해석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²⁶⁾ 孫詒讓은 “자세히 말하면 고대 머리에 쓰는 것(官帽)은 冕, 弁, 冠이 있으며, 세 가지는 예법상의 차이가 있다. 통칭해서 말하면 冕, 弁을 冠이라 하고 冕, 冠은 또한 弁이라고도 하니 따라서 이 관직은 冕과 弁을 겸해서 관장하면서도 특별히 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清華簡의 ‘弁’은 세부 명칭에 속하고 통행본 ‘弁’은 머리에 착용하는 복식에 대한 일종의 범칭으로 볼 수 있다.

두 판본을 비교했을 때, 清華簡이 ‘金縢之書’를 열어보기 전의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였다. 주목할 점은 왕과 대부의 복식에 대해 구별했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弁’은 ‘冠禮’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⁷⁾ 관례를 치른 귀족 자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두 판본의 비교를 통해서 파손된 부분에 ‘王’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成王은 이미 ‘弁’을 착용한 상태이며 이는 成王이 장성하여 어렸을 당시의 혼란상들을 정리한 상황을 암시해준다. 그러한 成王을 대하는 대부들의 모습을 ‘端’으로 묘사하였는데, 『史記·魯周公世家』“成王與大夫朝服”에서도 알 수 있듯이, ‘朝服’에 대응되는 ‘端’은 예복(禮服)의 일종이다. 이도 마찬가지로 왕권이 안정된 후의 상황을 묘사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清華簡 ‘以啓金縢之匱’는 통행본에서 ‘以啓金縢之書’로 쓰여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乃得周公所自以爲功代武王之說’의 ‘說’과 ‘書’는 의미상 중복된다. 清華簡 ‘匱’는 『論衡·感類』“未開金匱雷止也. 開匱得書”와 일치하며 통행본보다 문맥이 더 자연스럽다.

26) 注 13)과 동일, 300쪽.

27) 이와 관련된 내용은 楊寬, 『西周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년 4월, 781~787쪽을 참고.

11) 11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事人，曰，“信。抑公命我勿敢言。”王搏書以泣。 曰，“昔公勤勞王家，惟余沖人亦弗及知。 (맞습니다. 주공이 우리에게 명해서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문서를 잡고 울며 가로되, '예전에 주공은 왕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였는데 어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對曰，“信。噫公命我勿敢言。”王執書以泣曰，“其勿穆卜。昔公勤勞王家，惟予沖人弗及知。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아! 주공이 명하시어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문서를 잡고 울며 가로되, '점을 치지 말라. 예전에 주공은 왕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였는데 어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清華簡에서 점복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1호간에서도 통행본 '其勿穆卜'과 대응하는 용례도 볼 수 없다.

12) 12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今皇天動威，以彰公德，惟余沖人其親逆公，我邦家禮亦宜之。”王乃出逆公。 (지금 하늘께서 위엄을 발하시어 주공의 덕을 드러내고 있으니 나 어린 사람이 친히 공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예법에도 합당할 것이다.' 왕은 이에 나아가 공을 맞이하였다.)	今天動威，以彰周公之德，惟朕小子其新逆，我國家禮亦宜之。”王出郊。 (지금 하늘께서 위엄을 발하시어 주공의 덕을 드러내고 있으니 나 어린 사람이 친히 공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예법에도 합당할 것이다.' 왕은 교외로 나아가)

12~13호간 “王乃出逆公，至郊”는 통행본 ‘王出郊’에 해당한다. 皮錫瑞는 ‘王出郊’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로 今文學자들은 ‘王出郊’를 제사의 일종인 ‘郊祭’로 여겼다. 『後漢書·和帝紀』“成王出郊而反風”에 대한 주석에서 “王乃出郊祭天，事見『尚書』.”로 풀이하였는데 이는 금문상서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두 번째로 『論衡·感類』의 ‘出郊觀變’과 같이 ‘郊祭’가 아니라 교외 지역으로 나가서 변화를 관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清華簡 ‘王乃出逆公，至郊’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出郊’는 주공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외로 나가는 것이다.

13) 13,14호간

清華簡『金縢』	통행본『金縢』
至郊，是夕，天反風，禾斯起。凡大木之所拔， 二公命邦人盡復築之。歲大有年，秋(13호간) 則大穫(14호간) (교외에 이르자 저녁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반대로 불더니 비가 모두 일어났다. 뽑혀버린 큰 나무는 두 공이 백성에게 명하여 다시 심었다. 그 해에 풍년이 들고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었다.)	天乃雨，反風，禾則盡起。二公命邦人， 凡大木所偃，盡起而築之，歲則大熟。 (하늘에서 이에 비가 내리고 반대로 바람이 부니 비가 모두 일어났다. 두 공이 백성에게 명하여 쓰러진 큰 나무들을 모두 세워 심게 하니 그해에 큰 풍년이 들었다.

13호간 '盡復築之'는 통행본 '盡起而築之'에 해당된다. 통행본은 '起'와 '築' 두 서술어가 연이어 쓰였다. 今文學자는 '築'을 '立'으로 풀이하였다. 『史記·魯周公世家』는 통행본과 동일하며, 『論衡·感類』 "何不爲疾反風以立大木，必須國人起築之乎?"과 같이 今文學자의 의견을 토대로 '立'으로 쓴 것도 있다. 古文學자는 '築'을 '捨'으로 풀이하였다. 『經典釋文』에 인용된 馬融의 주석이나 『尙書正義』에 인용된 鄭玄, 王肅의 주석 또한 '捨'으로 쓰여 있다.

13호간의 '築'은 본래 으로 쓰여 있다. 이 자형은 『說文解字』 '築'의 古文 과 관련이 깊은 자형으로 상단부 '竹'과 하단부 '土'가 일치한다. 이 자형이 생략되어 '竹'과 '土'로 구성된 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초간에서 '쓰'은 '築'과 자주 통하는데, '쓰'과 은 모두 '竹'이 성부이므로 통가될 수 있다. 또한 『說文解字』에서 '築'을 '흙을 다지다(搗)'로 풀이하였다. 『釋名·言語』에서도 "築은 견고하게 채우는 것을 일컫는다.(築，堅實稱也)"라고 하였으며 鄭玄도 『詩經·大雅·縣』 '築之登登'과 『儀禮·既夕禮』 '甸人築坵坎'의 '築'을 "흙을 채우고 그 속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實土其中堅之)"라고 설명하였다.

清華簡 '築'은 今文學자의 의견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清華簡 '築'의 주체는 '邦人'이며 통행본의 '起'와 '築'의 주체는 '大木'이다. 따라서 앞 부분의 '凡大木之所拔'과 '二公命邦人'의 순서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歲則大熟’은 ‘歲大有年, 秋則大穫.’에 비해서 문맥이 부자연스럽다. 통행본에서 이미 ‘秋大熟未穫’와 같은 용례가 있었다. 이 용례와 마지막에 제시된 ‘歲則大熟’의 내용을 살펴보면 풍년이 든 해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 곡물이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하자 백성들이 놀라 당황해했고 왕, 대부는 점복을 진행하려했으나 뜻밖에도 주공이 무왕을 대신하여 희생이 되려는 축문을 발견하고 이를 사관에게 물어본 이후에 비로소 주공이 행한 모든 조치들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成王이 직접 주공을 맞이하려하자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세워진 것이다. 이변이 발생하기 전 이미 풍년인 상태였으므로 백성들이 놀라고 당황한 것은 곡물을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熟’은 일반적으로 과실이나 곡물이 다 자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熟’은 곡식이나 과일, 채소와 호응관계를 이룬다.

이를 종합하면, “歲大有年, 秋則大穫.”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3. 판본 비교를 통해 본 통행본 『尙書』의 '詰屈聱牙' 현상 분석

2절에서 살펴본대로 淸華簡『金縢』과 통행본『金縢』의 어휘에 차이가 있으며 문맥 또한 다르다. 淸華簡『金縢』의 용례는 의견이 분분할 만큼 난해하지 않으며 문맥도 자연스럽다. 韓愈가 도로했던 ‘詰屈聱牙’는 韓愈가 역대 주요 경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한 항목 중에 한 구절이다. “『春秋』의 근엄한 문장, 『左傳』의 허식적이고 과장된 문장, 『周易』의 기이하면서도 법도에 맞는 문장, 『詩』의 바르면서 아름다운 문장(春秋謹嚴, 左氏浮誇, 易奇而法, 詩正而葩.)”은 각 경전의 내용을 해석한 후 평가한 것인데 반해서 “周詰殷盤” 즉 『尙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詰屈聱牙)”고 언급했다. 淸華簡과 통행본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는 시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언어·문자습관의 차이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구절의 문자들이 의미상 연계가 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통기습관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이다.

『尙書』의 원시 형태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어·문자학 관점으로 이를 해결하려했던 시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顧頡剛의 譯註 작업이다. 『尙書』 중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인 「大誥」를 현존하는 모든 典籍과 注疏, 교감과 고증 등을 총망라하고 여기에 고고학 발굴 성과와 역사학 이론을 접목시켜 7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고증을 내놓았다.²⁸⁾ 이는 ‘詰屈贅牙’ 현상이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는 出土문헌을 참고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대한 자료를 동원하지 않아도 ‘詰屈贅牙’의 발생 원인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다. 3절에서는 2절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通行本 『尙書』의 ‘詰屈贅牙’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추측해보기로 한다.

1) 통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선진시기 문헌에는 수많은 통가자가 존재한다. 통가자는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기보다는 문헌 작성 시기와 환경에 따라 임의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차용한 문자의 본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王念孫은 『經義述問·序』에서도 “만약 가차자를 억지로 해석하려 하면 글이 어렵고 까다로워져 걸림돌이 된다.(如其假借之字而強爲之解, 則詰鞠爲病矣)”고 언급했다.²⁹⁾ 『尙書』도 마찬가지로 통가로 인해서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작자가 잘못 편집하여 문맥이 달라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용례 중에서는 4호간 ‘巧’와 通行本 ‘考’, ‘匍有’와 通行本 ‘敷佑’가 그러한 예이다. ‘巧’를 ‘考’의 高문으로 해석한 점과 본의가 ‘차지하다’인 ‘匍有’를 ‘돕다’의 ‘敷佑’로 해석한 것은 淸代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淸華簡 『金縢』의 용례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28) 顧頡剛, 『顧頡剛古史論文集』 卷十, 北京, 中華書局, 2011年 1월, 3쪽.

29) 王引之, 『經義述問·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5年 7월, 2쪽.

2) 제도,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제시한 ‘제도’의 함의는 주로 예법(禮法) 제도를 뜻한다. 주공이 거행한 의식은 서주(西周) 초기의 예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清華簡『金縢』과 통행본『金縢』의 작성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적어도 전국시기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최소 7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기록 수단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주 초기의 예법이 제대로 전승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따라서 문헌의 작성 시기에 존재하는 예법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작자의 이해에 따라 본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2절에서도 확인했듯이, 주공이 의식을 거행하면서 벽옥과 규옥을 다루는 장면은 두 판본에서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2호간의 ‘秉璧戴珪’는 통행본에서 ‘植璧秉珪’로, 5호간 ‘厭’은 통행본에서 ‘屏’으로 쓰여 있으며, 선왕의 허락 여부에 따라 취하려는 행동도 상반된다. 이와 같은 오류는 『金縢』외의 다른 상서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馬楠(2011)은 清華簡『金縢』10호간 ‘大夫~~鞞~~’을 ‘大夫鞞’로 해석하고, 『白虎通·緋冕篇』에 인용된 “黼黻衣, 黃朱紉”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尙書·顧命』‘布乘黃朱’의 본의는 ‘黼黻衣, 黃朱紉’이라고 하였다.³⁰⁾

종합하면,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자형이나 상고음 등의 언어학적인 오류라기보다 작자가 참고한 판본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3) 명확하지 못한 서술로 발생하는 경우

편집자가 이전 판본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판본을 작성하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용례의 과도한 생략이나 유의어를 사용하여 의미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어순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편집자의 의도와 다르게

30) 馬楠, 「楚簡與金縢互證校釋四則」, 『出土文獻』第二輯, 上海, 中西書局, 2011年 11月, 218쪽.

문자를 잘못 기입할 수도 있으며 누락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판본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이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본이 한 가지만 존재할 경우 오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2절에서 살펴본 용례 중, 이에 해당하는 오류는 통행본 “我無以告我先王. 周公居東二年, 則罪人斯得.” 중에서 ‘告’, ‘居’, ‘罪人’이다. ‘告’는 ‘알리다’라는 본의 외에도 이로부터 파생된 引伸義가 많다.³¹⁾ 통행본의 문맥상 ‘告’는 제사를 통해 알리는 경우와 직접 알리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清華簡『金縢』8호간의 ‘復見’에 해당하므로 주공이 사후에 선왕을 직접 대면하고 알린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居’와 ‘罪人’은 실제로 주공의 행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용례이지만 의미가 모호하여 역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8호간 ‘適’을 통해서 정벌과 깊은 관련이 있고, ‘罪人’과 대응되는 ‘禍人’을 통해서 관속을 비롯한 반란 세력을 지칭하는 용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행본의 편집자가 용례를 간략하게 서술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는데 ‘王出郊’의 ‘郊’는 ‘교외’와 더불어 제사 명칭으로도 풀이한다. 13호간의 ‘至郊’를 통해서 ‘교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판본간의 용례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이는 편집자의 誤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통행본 ‘金縢之書’는 10호간 ‘金縢之匱’에 해당한다. ‘書’와 ‘匱’는 자형, 상고음, 의미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다. 연이어 등장하는 ‘周公所自以爲功代武王之說’을 감안할 때, ‘匱’가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匱’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書’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추정가능한 원인은 편집자의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4) 후대인의 임의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경우

판본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한 용례도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일반적으로 후대인의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2절에

31) ‘告’는 『漢語大詞典』에서 10가지, 『中文大辭典』에서 1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 확인했던 통행본 용례 중에서 ‘予仁若考能多才多藝’는 清華簡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能’을 어느 구에 귀속해야할지의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즉, ‘能’의 문장성분이 명사인지, 아니면 능원동사로 해석해야할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9호간의 ‘誦’는 漢代 이후부터 출현한 ‘逆’의 용법 변화로 인해 발생한 해석상의 차이이다. ‘盡起而築之’는 清華簡『金縢』13호간의 ‘盡復築之’에 해당한다. 통행본에서 ‘起’가 더 추가된 것은 ‘築’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大木’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후대인의 해석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5) 중복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용례 또는 비슷한 의미가 중복 출현할 경우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통행본 마지막 용례인 ‘歲則大熟’는 앞서서도 이미 제시된 상황이다. ‘秋大熟未穫’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년이긴 하지만 아직 수확을 한 상황은 아니다. 清華簡『金縢』14호간과 대조해보면 알 수 있듯이 ‘歲則大熟’의 ‘熟’은 ‘穫’으로 수정해야 더 자연스럽다.

6) 판본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

제도,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와 마찬가지로 판본으로 인한 오류 역시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용례 중, 통행본 ‘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은 清華簡에서 ‘爾母乃有備子之責在上’로 쓰여 있다. 두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문장 형식이나 일부 용례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王翼日乃瘳’는 6호간에서 ‘就後武王力’으로 쓰여 있다. 주공이 의식을 올린 후에 무왕의 병세에 대한 기술이 서로 상반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각 판본의 편집자가 선택하는 문체, 용례, 기술 방식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4. 결론

통행본 『尙書』는 중국 최초의 역사문헌이자 한대 이후로 정치, 학술상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경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尙書』와 관련된 해석과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문헌의 원시 형태 및 전래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사상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후대인들에 의해 내용이 임의대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판본의 원시 형태나 문자와 용례가 지닌 본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대인들은 기존의 판본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거나 변형을 가했다. 또한 여기에 『尙書』에 대한 숭배 의식까지 작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문체를 『尙書』만이 지닌 독특한 문체라고 맹신하였다. 그래서 어법상 맞지 않거나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용례까지도 각종 의미를 부여하면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본 『金縢』과 淸華簡 『金縢』의 비교를 통해서 ‘詰屈聱牙’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淸華簡 『金縢』은 통행본과 달리 ‘詰屈聱牙’로 대표하는 난해한 용례나 부자연스러운 문맥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尙書』의 난독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6가지 유형을 제시한 것은 ‘詰屈聱牙’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함이다. 이 현상을 단순히 문체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학적 근거로 난독성을 해결하고자 했다.

최근 출토문헌의 지속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선진시기 문헌의 해석과 판본, 전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尙書』 관련 연구도 예외는 아니며 선진시기에 작성된 『尙書』 관련 문헌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방증 자료를 통한 추측을 넘어 판본을 직접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해졌다. 또한 동일한 문헌이 아니더라도 관련 용례를 통해서 난해하거나 부자연스러운 『尙書』 용례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金縢』 이외에도 『尙書』 다른 篇에 존재하는 ‘詰屈聱牙’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를 통해서 위 전제들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漢] 孔安國傳, [唐] 孔穎達疏, 『尚書正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년 1월.
- [清] 皮錫瑞, 『今文尚書考證』, 北京, 中華書局, 1989년 1월.
- [漢] 許慎撰, [宋] 徐鉉校定, 『說文解字』(附檢字), 北京, 中華書局, 1963년 12월.
- [宋] 蔡沈注, 錢宗武, 錢忠弼 整理, 『書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10년 1월.
- [清] 王先謙, 『尚書孔傳參正』, 北京, 中華書局, 2011년 9월.
- 楊寬, 『西周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년 4월.
- 周秉鈞, 『尚書易解』,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년 6월.
- 楊筠如, 『尚書覈詁』,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5년 12월.
- 屈萬里, 『尚書今注今譯』, 北京, 新世界出版社, 2011년 8월.
- 黃懷信, 『逸周書彙校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년 3월.
- 顧頡剛, 劉起鈞, 『尚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년 1월.
- 劉國忠, 李學勤, 『走進清華簡』,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년 4월.
- 宗福邦,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년 7월.
- 청화대학 출토문헌연구보호센터.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2011년 12월.
- [清] 王引之, 『經義述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5년 7월.
- 馬楠, 「楚簡與『金縢』互證校釋四則」, 『出土文獻』第二輯, 上海, 中西書局, 2011년 11월.
- 郝士宏, 「初讀『上博簡(六)』」, 무한대학 간백연구센터 홈페이지, 2007년 7월 21일,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648.
- 부단대 출토문헌고문자연구중심, 『清華簡「金縢」研讀札記』, 부단대 출토문헌고문자연구중심 홈페이지, 2011년 1월 5일,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1344.
- 陳劍, 「清華簡『金縢』研讀三題」,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四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년 12월, 150쪽.
- 陳劍, 「備子之責與唐取婦好」, 『出土材料與新視野』第四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 2013년.

〈中文提要〉

韩愈在『进学解』中早就透露了在读『尚书』时很困难,即‘周诰殷盘,诘屈聱牙。’历代认为『尚书』就是‘上古之书’。从传说中的尧舜时代至东周秦穆公时期,『尚书』保存了一千五百多年的史料。『尚书』中许多文句、词汇,跟秦汉时期古文不同。这在当时人看来是『尚书』所记载的语言当然非常不容易读懂,必须通过注释才能解释。从汉代开始,『尚书』成为一部政治哲学的经典。所以当时学者为理解『尚书』费了不少功夫。但是他们无法确认『尚书』的原本,还对其原意的考证也不太正确,终于产生了不少的错误。目前,『尚书』仍有许多商榷之处。其实,汉代儒者见到的『尚书』文句已经多次转写,但是儒者们对此没有探讨。汉代以后也对转写过程的研究不多,不免产生这种错误。『尚书』具有艰涩难读的特点,似乎也不足为怪了。

最近所发现的出土战国『书』类文献跟今传本『尚书』很不相同。我们在二节中通过今本和简文比勘,可以确认两种文本之间的出入。值得注意的是,在出土战国『书』类文献中没有‘诘屈聱牙’问题了。为解决今传本『尚书』的‘诘屈聱牙’问题,首先我们需要认清什么是‘诘屈聱牙’问题。这一问题不只限于异文或者通假问题,也不限于脱字、讹字问题。这一问题在传授过程中出现的,很可能是从汉代开始集中出现了。笔者在三节中对于『尚书』的‘诘屈聱牙’问题试加分别细论,提出了‘诘屈聱牙’问题不仅属于语言学方面,而且也属于文献学以及礼法方面的问题。具体地说,因为从战国时代人的立场上说,对西周早期礼法的理解很会不够全面,所以在文献传授过程中,书手在祖本的基础上进行抄写的时候,难免会犯错误。又,对同一现象的不同陈述不是语言方面的问题,而是从不同写本之间产生的问题。最后,笔者强调‘诘屈聱牙’不是『尚书』的叙事特征,而是传授过程中所发生的讹变或者错误。如果这些假设得到肯定,我们可以深入准确地探讨『尚书』的原始形态以及本义。

關鍵詞：尚書, 清華簡, 통행본, 詰屈聱牙, 金滕

이 논문은 2015년 1월 14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